

“결론은 투표를 잘해야 하는 거죠” “수트 핏 살리려고 운동 많이 했죠”

22일 개봉 ‘특별시민’ 주연 최민식

대선 앞둔 정치영화에 “작은 사명감”

배우 최민식은 “영화 ‘특별시민’은 지금까지 정치 현실로 다가서 그 끝을 보고 결론을 내는 영화”라며 “그 결론은 투표를 잘하자는 것, 잘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그는 18일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선거는 미래다. 그 소중한 표 한 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 현실도 정글정글한데 이런 시국에 또 정치영화냐. 현실도 정글정글한데 돈 주고 극장에서 이걸 또 봐야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지겹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 지겨운 데로 들어가서 끝을 보고 결론을 내는 영화입니다. 그 결론은 투표를 잘하자는 것, 잘 뽑자는 것이죠.”

그는 “이 자그마한 영화가 단 한 사람과라도 소통해서 투표장에 가게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 우리의 기능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소박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영화 ‘특별시민’은 서울시장 변종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거판을 그렸다. 작품 속에서 최민식은 노련한 연기로 권력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 역할을 소화해낸다.

그는 “정치인의 흥망성쇠는 말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주인공 변종구를 연기할 때도 말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우리나라 정치, 정치인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얻어진 결론이 ‘말’이었어요. 말로써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에게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흥하기도 하고...정치인의 흥망성쇠가 말 속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기할 때 말에 집중하고, 언어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려고 했습니다.”

박인제 감독은 “이 영화의 화두는 권력욕”이라며 “권력욕의



최민식

상징인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의 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영화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3년 전 쓴 시나리오인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개봉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영화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경구

내달 개봉작 ‘불한당...’ 악역 절정 설경구

임시완과 연기 호흡 “케미 좋았어요”

영화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의 주연을 맡은 설경구와 임시완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소감을 밝혔다.

설경구는 19일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브로맨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촬영하면서 임시완이라는 배우와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웃었다.

임시완은 “사랑까지는 아니고 ‘케미’가 좋았던 것 같다”며 “설경구 선배가 진짜 형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셔서 노는 느낌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내달 개봉하는 영화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은 범죄 조직의 일인자를 노리는 재호(설경구)와 패기 넘치는 신참 현수(임시완)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 액션 드라마다.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몸이 딱 맞는 수트를 입고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소화해낸다.

임시완은 “액션이 이렇게 많은 작품은 처음”이라며 “액션을 소화하고 수트 핏을 살리려 운동 많이 했다”고 말했다.

변성현 감독은 “임시완이 대역을 쓰려고 했던 장면까지도 훌륭하게 소화해 내 놀랐다”고 말했다. 설경구는 “가슴팍과 팔뚝 살을 키우러”는 감독의 주문에 따라 지방 합숙 촬영 때에도 매일 아침 출근기를 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맞춤 정장은 처음 입어봤다”면서 “감독님의 주문에 따라 허리엔 힘을 주고 뺏뺏하게 피려고 했다”며 웃었다.

변성현 감독의 두 번째 상업영화인 이 작품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70회 칸국제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인 ‘미디나이트 스크리닝’에 초청됐다. /연합뉴스

‘평창홍보대사’ 김연아 무한도전 두번째 만남

‘평창특집’ 화려한 캐스팅에 연일 화제 첫회 박보검 아이스하키 도전해 눈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피겨 여왕’ 김연아(사진)가 8년 만에 MBC TV ‘무한도전’을 다시 찾았다. ‘무한도전’ 측은 19일 “오는 22일 방송될 ‘2018 평창’ 특집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온 김연아와 멤버들의 설레는 만남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주부터 방송된 평창 특집의 첫 번째 게스트로는 배우 박보검이 나서 화제를 모았다. 박보검은 멤버들과 함께 거친 아이스하키에 도전, 정식으로 유니폼을 갖춰 입고 국가 대표 선수들과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스피드가 생명인 팀 추월 스케이팅, 고도의 작전과 정확도로 경쟁하는 컬링 경기에 참여한 모습도 이번 주에 볼 수 있다. 22일 오후 6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KBS1, KBS2, MBC, and KBC/SBS on April 20th.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Table with EBS1 program schedules for April 20th. Columns include time and program name.

Table with zodiac signs and their fortunes for April 20th. Includes signs like 子 (Rabbit), 丑 (Ox), 寅 (Tiger), 卯 (Rabbit), 辰 (Dragon), 巳 (Snake).